

경북지역 보건진료원의 업무와 관련된 요인 분석 연구

김정남 · 김성혁

결 론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을 통한 일차건강관리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보건진료원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무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가 전국의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 지역 보건진료원 전수인 240 명이었고, 1986년 9월 25일 부터 27일 사이에 3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에 의해 X^2 -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의 통계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건진료원 1명당 보건의료를 제공받고 있는 주민수는 평균 1,684 명으로서, 전국의 보건진료원에 의한 보건의료를 제공받고 있는 우리나라 주민은 약 337 만명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8%이며 농촌인구의 약 28%가 보건진료원들에 의해 보건의료를 제공받고 있다.

2. 보건진료원들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적정 담당 주민수는 평균 1,275 명으로 실제 담당 주민수보다 409 명이 적은 인원이었다.

3.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사회에 보건의료

자원은 약국(방)이 54.3%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주민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곳은 보건진료소(61.6%)로 나타났다.

4. 보건진료원이 환자치료중 가장 많이 의뢰하고 있는 기관은 병·의원(69.5%)이며, 보건소(23.7%), 보건지소(4.2%) 순이었다.

5. 보건진료원이 업무협조가 가장 잘되고 있는 기관은 보건소이며, 보건지소, 민간보건의료기관 순이었다.

6. 보건진료원을 전문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전문 간호감독 요원 제도의 설치에 대해 81%의 보건진료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7. 보건진료원의 7개 직무영역의 업무수행은 “통상질환관리”, “사업 운영관리 및 지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지역사회 보건관리”,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사업계획 수립”, “보건정보 체계”의 순위로 자주 수행하고 있었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통상질환관리”에 약 3시간 30분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통상질환관리”와 타 직무영역 간에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은 타 영역에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8. 연간 보건진료소 이용자수는 보건진료원의 연령($F = 28.534$, $P < .001$)에 따라서 보건진

료소의 시설상태 ($F = 5.434$, $P < .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9. 50.6%의 보건진료원이 현재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고, 7.3%의 보건진료원이 불만족하고 있었다. 만족정도는 학력 ($F = 3.384$, $P < .05$)과 진료소 시설상태 ($F = 3.078$, $P < .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0. 보건진료원의 7개 직무영역별 업무수행 정도와 독립적인 설명 능력이 있는 선정된 15개 변수(연령, 성별, 결혼상태, 가족과 동거여부, 종교유무, 학력, 경력, 근무지역, 진료소 신축여부, 진료소 시설상태, 현담당 주민수, 적정담당 주민수, 진료소 이용자수, 이용건수, 직업만족도)간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결과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사업계획 수립”,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P < .05 - P < .01$), 타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5$). 각 영역별로 선정된 변

수들의 설명능력은 최저 5.7%(통상질환관리)에서 최고 34.7%(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72%가 아직도 보건진료원에 의한 일차건강관리 사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일부는 소도시 및 읍지역에 접하여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주로 질병에 이환되었을때 치료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요구도가 증가되어 가는 현실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확대 일로에 있는 이 시점에서 보건진료원에 의한 일차건강관리 사업의 확대로 예방적 보건의료 사업이 강화되므로써, 특정 보건의료 기관(2차·3차)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보험의 제정적인 측면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증가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요구도의 해결을 위해 본 제도의 확대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